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, 구의원을 공유재산심의회에 포함시켜 의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고 금천구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4조제3항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,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

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(안 제7조)

-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(안 제33조제3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,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며, 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,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공유재산의 관리를 감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 -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 위촉대상자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신설하고,
  -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사항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체납 내역, 불법 무단 사용 여부를 신설하고,
  -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실태 조사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해야 할 추가 사항으로 사용·대부료 체납 재산을 규정함.
  -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조치계획 수립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 처분,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, 사용·대부료 체납대책을 추가 신설함.
  -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 조사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규정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보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,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별개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
- 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제처에서는 의견을 제시(법제처 의견21-0015)하고 있음
-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신 제출로 완화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,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